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단어형성에서의 '生'의 용법

윳 밍

2011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선생님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자어 '生'이 한국어 단어 형성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生'이 단독으로 쓰일 때와 다른 어기에 결합할 때 선행 위치나 후행 위치에 따라 그 의미와 쓰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生'은 중국어에서 명사이기도 하고 형용사/동사이기도 하며 접미사의 기능도 겸할 수 있는 형태소이자 단어이다. 한국어 체계에서는 '生'이 아직 중국어의 속성을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지만 한국 고유 문법의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어 체계 안에서, 특히 단어 형성법에서 한자어 '生'이 중국어 문법의 특성을 다수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이 걸쳐 한국어 속에 쓰이면서 고유어문법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체계 속으로 동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형식을 가진 형태소 '生'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주로 어근 '生', 접두사 '生', 접미사 '生'의 세 가지 방안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한자어 사전과 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두면서 신어자료의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生' 결합형과 코퍼스에 등재된 2112항목의 용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기술하고 설명하였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자어가 한국어에 수입되어 고유문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부 한자어가 자립형태소에서 의존형태소로 실현되는 것이다. 비록

‘生’ 이 명사의 품사를 가지고 몇 가지의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 자립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할 때 그 자립성을 잃어버린다. 또는 여기서 ‘生’ 은 단어로서의 용법을 보장받는 환경에서만 자립성을 가지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의존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단어 형성에서는 자립형식 ‘生’ 의 사용범위가 좁다. ‘生’ 이 단어 형성 요소이면 의존형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生’ 의 자립형식과 의존형식은 제2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그의 특성을 밝혔고 어근 ‘生’ 의 의미기능과 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어근 ‘生’ 의 특성에 대해서는 첫째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한 자어와 똑같이 한국어의 굴절접사(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으며 한국어 고유어와 달리 하나의 형태소라도 동사, 명사, 관형사, 부사 등 여러 가지 품사성 어근으로 쓰여 다양한 구조로 단어를 형성한다. 둘째, 어근 ‘生’ 은 한자어기와만 결합가능하다. 이는 접사 ‘生’ 과 가장 차이가 나는 특성이다. 결합어기의 앞자리나 뒷자리에 다 올 수 있어 2자어 구조에서 적극적으로 단어형성에 참여한다. 특히 2자어가 고유어 문법과 별개 문법을 운용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수식이나 병렬, 주술 구조처럼 고유어에서도 가능한 구성으로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고유어와 달리 목적어와 보어가 서술어 뒤에 오는 술독 구성과 술보 구성으로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2. ‘生’ 이 접사의 자격을 가질 때, 특히 접두사인 경우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生’ 은 중국어에서 수입되지만 한국어에 들어와서 고유어문법의 영향을 받아 한자어와 결합할 뿐만 아니라 결합대상의 범위가 넓어져서 고유어나 외래어와 잘 결합할 수 있다. 특히 접두사 ‘生’ 이 한국어의 고유어 접두사와 대치할 수 있는 양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아주 높다. 제3장은 접사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접두사 ‘生’ 의 접사화 과정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접두사일 때 ‘生’ 이 한국어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따라서 활용범위도 넓어진다는 것을 보였다. 대개 접두사 ‘生’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두사 ‘生’ 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둘째, 의미가 풍부해

서 다의성 접사로 간주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접두사 ‘生’ 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주로 3자어를 이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자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어기와 결합하면 명사를 파생시키지만 ‘생잡다, 생떡다’ 처럼 동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가 동사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접두사 ‘生’ 은 한자어이든, 고유어이든, 외래어이든 다 잘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난 특징이다.

3. 제4장에서 접미사 ‘生’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접두사 ‘生’ 과 달리 접미사 ‘生’ 의 의미 범위는 그보다 축소되어 주로 ‘사람을 가리킴’ 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접미사로 쓰이는 ‘生’ 은 단어를 만들 때에는 한자어와만 결합한다.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한 예는 사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실제로 특별한 경우에 ‘아르바이트’ 라는 외래어와 결합하여 ‘아르바이트생’ 과 ‘알바생’ 을 구축하였다. ‘生’ 도 접미사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보습학원생’ 처럼 단어 이상의 단위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는 형태적 파생 구조가 아닌 통사적 파생구성이지만 그래도 접미사 ‘生’ 의 한 특징이라 생각할 수 있다.

4. 본고가 다루는 내용 중에는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신어자료’ 에서의 ‘生’ 결합형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본고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신어 자료집을 근거로 ‘生’ 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어를 형성하는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고 ‘生’ 의 생산성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신어 ‘生’ 결합형을 어종별로 분류하면, [生+한자어]와 [한자어+生]의 구조가 가장 많고, 그 외 ‘生’ 은 고유어와의 결합, 외래어와의 결합, 한자어 및 고유어와의 동시 결합 등 혼종어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자어와 결합하는 것이 신어 형성에 있어 매우 생산적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